

발명 365

종이

요즘 우리는 종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. 종이처럼 인류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도 흔치 않을 것인데 이것은 누가 발명 했을까?

지금으로부터 3, 4천년 전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 파피루스라는 수초가 자라고 있었다. 물에 불린 수초를 가지런히 펴 무거운 것으로 눌러 붙여 만든 것이 원시의 종이였다.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종이가 만들어지고 있다.

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는 1,800여 년 전에 중국의 채륜이 처음 발명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. 채륜의 종이는 삼 따위의 식물섬유를 원료로 하여 만들었다. 그 후 이것은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고, 더 좋은 종이를 연구했다. 그 결과 1843년 독일 태생의 직물기술자 켈러가 나무를 잘게 부수는 왜목펄프 방법으로 종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.

